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 (마르코 4, 35~41)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3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금) 19:3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금) 20:0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건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 라인
건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10 시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금) 성시간 후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 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 주수 변경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6/23(일) 연중 제 12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6/25(화)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본당 20:00)
▶6/30(일) 연중 제 13 주일 (본당 20:00, 공소 17:30))

◎ 해밀톤 성 유대철 본당 30주년 축하 골프대회

▶ 일시 및 장소: 이번 주 (토) 12:00, Southbrook Golf Club,
▶ 참가비: \$130 (그린피, 파워카트, 기념품, 중/석식 포함)
▶ 접수 및 문의: 김한욱 (이력) 행사분과장
** 많은 관심과 기도, 물질 후원 부탁드립니다
※ 당일 혼잡을 막기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접수해
바랍니다.

© ME 주말 - 토론토 41 차 -

▶ 일시: 7/5(금) 19:00 ~ 7/7(일) 18:00
▶ 장소: St. Augustine's Seminary of Toronto
▶ 신청 문의: 김대하 사도 요한 주임신부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해 주실 주일학교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문의: 박혜영 수산나

◎사목회의

▶6/28(금) 20:00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주보는 미사 후 반드시 집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온타리오 한인 성당 골프 대회 일정

주최	일시및 장소	참가비
예수성심성당	7/27(토) 13:00 Glen Eagle G.C.	\$140 (그린피+파워 카트+중,석식 +상품)
토론토 한인 성당 박상재 빈첸시오 (416.882.8385)	8/12(월) 11:30 Station Creek	\$160 (그린피+파워 카트+석식)
캐나다 한인 꾸르실료 (문의: 간사 이정길 테오필로)	8/17(토) 13:30 Glen Eagle G.C.	\$140

공소 소식

- ▶ 7/7(일):미사 없습니다. (김대하 신부님 주말 ME 교육)
- ▶ 해밀턴 본당 미사 또는 로컬 성당 미사에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번 주 간식은 김명숙 헬레나 자매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단체 소식



구역 소식



친교 식사

6/23: 1 구역 콩나물밥과 오이 냉국(\$5/\$3)
6/30: 2 구역 7~8 월은 구역식사 없음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38 명)			
주일헌금	\$1375	교무금	\$12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1025

※특별헌금:교구 은퇴사제 \$15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유정옥 로사 자매님-> 성모회(\$500)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6 월 본당 세례 축일자(22 명)

6/ 8 윌리엄(배두중, 이현상)
6/ 10 올리비아(이정희)
6/ 15 제롬(박용범), 레지나(주현주)
6/ 18 마리나(임수미, 채송화)
6/ 19 율리안나(한희수)
6/ 22 토마스모어(이규하)
6/ 24 세레자 요한(김풍수, 김 브랜든, 황윤하)
6/ 29 바오로(김영철, 이기환, 조우호, 민경하, 이준우)
베드로(김성수, 김재겸, 하태성), 엠마(박수현)
6/ 30 시몬(오세갑)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6/23	박혜영 수산나	최다희 보나 최다혜 플로라	1 독서: 이인선 켄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성수 베드로 이재순 데레사
6/30	박규혜 카타리나	송찬 아론 유서진 다니엘	1 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이인선 켄마 박규혜 카타리나

“나를 구원할 분이 내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김원석 아우구스티노 신부
부산 성모병원 원목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면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가르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려움을 벗기 위함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누리는 평화 때문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적어도 이 믿음을 통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거나, 나에게만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남들보다 운이 많은 나이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삶에서 쉼 없이 고통이 몰려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죽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할 분이 내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해야 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마르 4,38)

사실 아무리 작은 너울이라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 충격과 걱정은 큰 돌풍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또 사실 엄청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돌풍이 오기도 합니다. 큰 돌풍이 우리가 정신도 못 차리게 온다든지, 연속적으로 온다든지 하는 것에 우리는 절망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내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과 모르고 항해를 하는 것과는 배 위에서의 삶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돌풍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풍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믿고 돌풍이 불고 배가 침몰할 거 같은 상황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성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뿐이지 우리 인생의 많은 돌풍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잠잠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마르 4,41)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계신 분들은 “내 인생에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그 어떤 돌풍에도 난 평화를 누릴 수 있기에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평화로우면 됩니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한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12 주일

(2024. 6. 23.)

제 1 독서 욥기의 말씀입니다.38,1,8-11

화답송 시편 107(106),23-24.25-26.28-29.30-31(◎ 1 참조)



후렴.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 서 말씀입니다.5,14-17

복음 환호송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4,35-41